

효행자가족의 특성 및 부양행동 분석*

Study on the characteristic and caregiving behavior of families who awarded on filial piety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金 明 子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金 秀 妍

Dept. of Home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Kim, Myung Cha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im, Soo Youn

〈 목 차 〉

- | | |
|-------------|---------------|
| I. 연구목적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and caregiving behavior in families who awarded on filial piety. Using the qualitative method, 137 families and social supports to them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Most of caregivers were daughter-in-law over 40 years in 3-generation or 2-generation family. Elderly can be characterized as oldest-old, dependent, long-term care for more than 10 years. (2)These families showed very high family solidarity with strong collectivity. (3)Their economic, emotional and service cares were family-centered with helps from their extended family. These families were supported emotional helps rather than instrumental helps from social network. It was concluded that to help family elder care, social support program for the frail elder caregiving families should be complemented in their children support

* 본 논문은 1998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program, family life enrichment program for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medical care program, other social network program, and religion program etc. And more concrete and qualified study for the adaptation of filial piety families should be followed.

1. 연구목적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의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급기야 가족의 위기론까지 대두되면서 가족의 중요성은 그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한국가족은 핵가족화의 진행과 함께 혼자사는 노인가구의 증가 등 형태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가족의 형태적인 변화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령화현상과 이에 따른 부양지수의 신장등 多老少少의 현상이다(통계청, 1997).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국민저축율의 감소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비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며, 서비스적으로는 만성질환이나 장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노인의 간병 및 수발을 해야할 가정적, 사회적 서비스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여성의 취업증가,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사회시설프로그램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 그리고 국가적인 변화로는 IMF등으로 인한 국가예산의 절감과 노령국으로의 진입등과 같은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 성인세대와 노부모세대간의 균형은 점차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불균형은 국가적차원으로 볼때 사회보장예산에 대한 노인비율의 증가로 수혜대상의 편중이 이루어지고, 개인적으로는 노부모부양을 담당하는 성인세대의 역할과중으로 세대간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상호세대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미국에서도 가족부양의 문제는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기부양화 되어가는 경향으로 특히 기능이 손상된 와병노인의 비율이 85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전체 노인의 절반가량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노인의 부양이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 친족 등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어 노인 부양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1985, Long-Term Care Survey Data; Dwyer & Coward, 1992).

한편 한국가족의 전통적인 가족특성이 家系の 계승과 가족의 욕구충족, 자녀의 사회화, 가정내의 상부상조와 정서의 생산, 도덕교육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할 때(진교훈, 1996), 아직도 한국가족에서 規範이나 가치에 대한 문화체계의 변화는 외형상의 변화만큼 크지 않다. 따라서 한국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는 여전히 孝라는 문화적·규범적 윤리의 틀안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이며, 특히 가족중심적 가치관이 개인중심적 가치관에 비해 우세하고, 가족문제의 주요 해결책은 가족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연구에서처럼(이광규 외, 1996) 부모의 부양은 아직도 전적으로 가족의 부양에 의존하고 있으며, 희생과 인내를 수반하게 되더라도 가족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동시에 가족의 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농촌가족의 경우 형태적으로는 수정된 직계가족으로 거주가 분리되어 있으나 상호유대관계가 긴밀히 유지되고 있다는 연구(박부진, 1996)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부모와의 동거·별거와 관계없이 효규범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효과 효행동이며, 부양행동으로 구체화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념적 효과 실생활에서의 노부모 부양의 어려움은 문화적인 규범과 실제적인 사회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문화지체(Culture Lag) 현상으로 이해되며, 구체적으로 가족내에서의 자원분배에 대한 가족간의 갈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효의 가치가 현대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보은과 정서적 부양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연구들도(박재간, 1992; 김명자, 1996; 성미애·육선화, 1997) 있으며, 실제로 효행동의 기준도 여기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이와같이 효란 사회가 인정하는 문화규범으로서 개인적 가치임에는 분명하나,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것이고, 효행동은 구체적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개인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그 연구가 확대될 필요성을 갖는다.

효행을 행하는 사람은 개인이지만 가족에서 분리될 수는 없으며, 특히 부양은 여성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구와는 달리 부자선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가부장제하에서는 며느리의 가정내의 역할, 특히 시부모 부양에 대한 역할은 강한 규제적 성격을 갖으므로 한국가족에서의 효행은 일차적으로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이며, 나아가 상징적 역할수행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성숙기의 효개념과 함께 사회에서 기대하는 사회적, 가족적 역할기대와 수행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가족의 변화 속에서 노인가족과 이들의 적응을 연구하기 위하여 급진적인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효규범에 따라 노부모부양을 실천하는 효행가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바이다. 특히 연구의 단위가 효행자 개인에 치중되거나 가치적인 면에만 국한되기 보다는 효행자와 이들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기타 가족원, 더 나아가 친족과 이웃등 사회의 단위로 확장하여 이들의 상호성에 관한 분석과 함께 가족 특성에 중점을 두고, 이들 상호작용 속에서 효행가족이 다른 가족들에 비해 갖을 수 있는 적응변인들을 찾고자 하는 바이다. 즉 효행상을 수상한 효행가족을 대상으로 이들가족의 특성을 주부양자인 효자·효부를 중심으로 개인적 특성, 가족적특성, 사회특성에 대한 내용을 효행 행적서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 이들 가족의 효행동을 실제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양행동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기초로 노인의 장기부양과 특히 와병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 자료를

제공하고, 비슷한 환경 속에서 부양을 하는 노인 부양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국가족의 문화체계를 이해하고, 가족의 장기부양 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한국가족에서의 효행동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 중에서도 부모-자녀간의 윤리인 효는 가장 대표적이며, 기본적인 것으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일방적인 효행보다는 쌍방적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가족속에서의 효행동을 삼국유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효의 측면은 가족적 범주에서 보다는 선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의 영역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가족내에서의 부양을 중심으로 자기희생적인 효행을 한 사례들을 통해 효행의 어려움을 알 수 있으며, 그 사례도 희귀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일명·이정덕, 1996).

17세기 이후 성리학의 영향으로 효란 토지를 근거로 하는 부모-자녀간의 권력과 복종으로서 봉사조를 얻게 되는 장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효행이 강조되었다(이태진, 1990). 그러나 이것은 일부 지배층 계급에 국한된 가치이며, 하층계급으로까지 확산은 분명치 않다. 실제로 상민을 중심으로 장적을 살펴 보면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매우 드물며(최재석, 1983), 근대 한국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도 친족의 범위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평균 가족원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여(김두현, 1989), 3세대 직계가족의 감소를 증명하고 있어 효의 기초가 되는 부모와의 동거부양 비율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최근 30년간의 효행자를 중심으로 본 한국인의 효행에 대한 가치는 크게 존경, 책임, 가족화합, 희생의 의미로 효행동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부양행동으로 나타나며, 가치와 행동은 지역, 문화적 차이를 갖을 수 있다고 하였다(성규탁, 1989; 1996). 또한 구체적으로 효의식이나 부양의식등으로 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관계를

보고자 하는 연구(최정혜, 1997)와 특히 효도관의 하위영역을 순종,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경제적 부양, 입신양명, 사후제례, 신체보호, 현실에 맞는 효 등으로 나누어 성인자녀의 효도관을 연구하기도 하였다(김명자, 1996).

한편 외국에서의 효에 관한 연구도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자식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성숙된 부양태도를 보이는 행동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부양 책임감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발적인 상호 호혜성에 도덕적 근거를 두는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수행모델(Commitment Model)로 변화되는 추세라고 하였다(Janet Finch, 1995).

현재 국가에서 선정하는 효행자의 기준은 “만 30세 이상으로,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덕행으로 집안을 화목하게 하며, 부모와 동일가구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불편 없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극진히 봉양하는 자”이며, 다른 단체들에서 수상하는 효행자의 기준도 대개 비슷하다. 즉 동거를 기본으로 하여 노부모를 부양, 수발하는 가족부양을 우선으로 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선으로 까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효행자 가족부양의 특성은 노부모와의 동거를 우선으로 하며,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적 부양이 효행자 가족에게 집중되며, 가족의 화합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등으로 가족 우선 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보다 어려운 환경속에서의 부양을 강조하기 위해 노부모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심히 의존적인 경우가 많아 과거 단지나 신흥거사의 예(삼국유사)에서와 같이 자신의 살을 베어 드리는 극단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가족자원의 분배에 있어 가족의 희생이 따르는 효행을 하고 있다. 즉 부양가족의 효행자 개인은 물론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 및 가족원들이 효행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하고 있으며, 그 기간도 장기화 되고 있어 잠재적으로 가족원들에게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2. 효행자가족의 부양행동과 관련변인

효행자가족의 부양행동을 직접적으로 관련시켜 분석한 연구가 한두편에 불과하므로 노부모 동거가족의 부양행동을 포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1) 부양자의 개인적특성과 노부모부양행동

부양자의 개인적 특성은 연령이나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정도, 효도관, 건강, 취업유·무, 종교성 등을 들 수 있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연구들에서 노인 부양이 남성보다는 여성에 의해(Gary & Lee, 1992; Montgomery, 1992; Mathews, 1995), 연령이 낮은 여성보다는 연령이 높은 여성의 경우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부양행동도 보다 긍정적으로 수행한다고 하였다(Robinson, 1995). 실제로 신세대와 중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비교하여 본 결과 중년기 주부가 신세대 주부에 비해 부양부담감을 적게 느끼며, 상대적으로 효도관이 높다고 하였다(김명자·안선영, 1996; 김명자, 1996).

개인의 건강은 특히 중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노부모 부양으로 부터 오는 부담감이 문화적 규범의 차이보다는 부양자의 건강이나 경제적 수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Choi, 1993), 특히 와병노인 부양자의 건강은 더욱 중요한 부양행동 결정변인으로 부양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배우자유·무에 따라 부양행동이 결정되며, 특히 와병노인 부양자가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서적·도구적 도움은 부양자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Frank & Stephens, 1996). 또한 개인의 결혼상태는 가족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도 있으며, 특히 서구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결혼으로 인해 시부모의 부양을 며느리가 담당하게 되고, 전통적으로 시부모 부양이 딸며느리에게 기대되므로 장남과의 결혼은 딸며느리의 부양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이외에도 부양자의 취업여부에 따라 노부모 부양에서 오는 긴장이 증가되거나 역할갈등을 갖게 되어 취업이 부양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연구도 있다(Starrels et al, 1997).

개인의 종교성은 개인의 발달적 전환이나 위기, 스트레스 등에 대처하는 중요한 개인적 변인이 되며(김명자, 1989), 부족한 자원을 갖을 수록 종교를 통하여 자원을 보완한다고 하여 여성이나 노인, 흑인 등이 보다 종교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특히 가족간의 종교가 일치하거나 어릴적 부터 지속적인 경우에 가족간의 결속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Hayes & Pittelkow, 1993). 그러나 직접적으로 종교성이 부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없으며, 다만 종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선(Goodness)의 의미로 부모와의 성숙된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효도관에 의해 부양의 부담감과 보상감이 결정된다는 연구가 있다(김명자, 1996).

2) 가족적 특성과 노부모부양행동

노부모 동거가족에서 가족적 특성으로 우선 가족원의 결속도는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 Pyke & Bengtson(1996)은 와병노인 가족부양의 질이나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의 결속도를 보면서, 가족원의 개인적 혹은 집합적인 가족성향이 가족의 결속도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가족중심의 집합적인 특성을 갖는 한국가족의 가족주의 가치관인 효와 관련시켜 볼때, 한국 효행자의 가치가 가족속에서 결속도를 통해 부양행동으로 구체화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결속도란 구조적으로는 동거나 물리적인 접촉 등으로 정의할 수 있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나 친밀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동적인 면으로는 가족원들의 도움정도나 가족원의 수, 도움의 교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가족결속도는 가족상호간의 역동성으로 건강가족이나 가족의 적응력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노부모 동거가족에서의 결속도에 있어, Keith(1995)는 가족부양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가족부양을 결정 짓는 변인이 가족결속도로 주부양자와 다른 가족원들의 상호 도움의 정도라고 정의한바 있다. 최정혜(1995)의 연구에서도 가족결속을 세대간의 결속이라고 하여 특히 노인부양에서 가족간의 결속도란 동거 유·무와 접촉의 정도 라고 하였다. 또

한 와병노인 부양가족연구에서도 가족의 지원정도를 가족결속도로 측정하여 분석하고 있다(Sagy & Antonovsky, 1992; Reinhard & Horwitz, 1995; Miner, 1995; 이윤로·성규탁, 1998). 그러나 이런 가족 결속도나 응집력은 가족에 대한 잘못된 신화나 충성심 등을 요구하게 되어 오히려 가족의 기능성을 저해할 수도 있으며(Bentovim & Kinston, 1991), 구체적으로 노인가족의 부양에 있어서 만능노리의 부양 부담감이 더욱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김명자, 1994).

피부양자의 특성도 중요한 관련변인으로 피부양자 자신만이 아니라 부양가족의 가족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피부양자가 심하게 의존적인 경우 성인자녀의 부양행동에 많은 부담감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Prucgno, 1995; 송현애·이정덕, 1995). 특히 고령의 노부모 동거가족의 피부양자는 대체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자원이 빈약하지만 과거에 가족원과 갖었던 친밀감이나 보은의 대상, 또는 효에 대한 책임감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리고 현재 부양자에게 보여주는 감사함이나 상호성등이 중요한 피부양자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한 가족내에 장애를 갖거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다른 가족원의 유·무는 부양자의 부양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거환경이나 의료기기의 보유정도, 경제적 만족 및 소득수준, 가정설비의 편리성등과 같은 가족의 물리적 환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지원과 노부모부양행동

또 다른 중요한 관련변인으로 친족이나 이웃, 지역사회적인 특성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족외적인 특성은 제도적인 지원과 사회정서적인 지원으로 나뉘며, 중요한 사회적 자원을 제공한다. 즉 가족이외의 친족이나 이웃, 지역사회의 도움과 더 넓은 의미로 국가정책이나 제도, 효규범 등과 같은 문화규범적 특성들도 포함될 수 있다. 즉 개인의 부양행동에 대한 사회의 적절한 관심과 보상등은 중요한 부양결정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성규탁, 1996), 특히 모든 부양이 가족우선부양에 집중되는 한국의 노

부모 부양특성하에 사회의 지원은 부양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의 제도적 지원에는 재정지원이나 재가복지사업과 같은 서비스적인 지원이 있으며, 사회정서적인 지원에서는 효행상을 수여하거나 이들과가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격려하는 것이며, 예를들어 조선대 의대 병원에서는 효행자로 추천을 받은 가족 전원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별로 효도회가 결성되어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효규범이나 효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친족이나 이웃의 인정으로 이어지며 이런 문화적 특성이 효행자의 부양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다. 특히 부락단위나 씨족단위로 오랜동안 생활해 오던 한국의 가족에서는 더욱 큰 의미가 될 수 있어 효자문이나 효자비등이 마을 전체의 상징으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효행자로 추천된 가족의 개인적·가족적·가족외적인 변인들을 분석하고, 이들 가족의 부양행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효행자 가족의 특성과 부양행동 분석에 관한 연구로 효행자 개인과 가족 및 사회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족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효행자 자신은 물론 가족원의 부양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모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1996년도와 97년도 효행상 대상자 가족 추천서 137 사례를 중심으로 효행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적 특성, 사회지원 및 부양행동을 중심으로 내용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효행가족의 부양과 적용에 관한 질적연구를 위한 설행적, 사실적 기초연구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효행자 가족의 특성분석

〈연구문제 1-1〉 효행자의 개인적 특성(연령, 건강, 배우자 유·무, 직업, 종교성)과 가족특성(피

부양자의 특성, 가족결속도, 주거환경)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1-2〉 효행자 가족의 가족외적 지원(사회·정서적 지원, 사회적 제도)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효행자 가족의 부양행동 분석

〈연구문제 2-1〉 효행자 가족의 부양행동 유형 및 부양행동 내용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효행자로 추천된 137명의 가족을 중심으로 효행자 개인은 물론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 피부양자에 대한 개인적, 가족적, 가족외적인 특성들을 효행행적서를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으며, 부양행동과 어려움등은 사례별로 내용분석하였다. 부양행동 유형은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 부양행동으로 나누었으며, 부양의 어려움은 부양부담감(김명자·안선영, 1995)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공통의 특성을 찾고자 내용을 분류하여 빈도화 하였으며 사례별로 정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효행자 가족의 특성

1) 개인적특성

(1) 성별 및 연령

〈연구문제 1-1〉과 관련하여 효행자의 개인적 특성을 분석한 내용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인 효행대상자로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남녀의 비율은 남자가 42%, 여자가 58% 이며, 연령대에서도 40대 이후의 연령대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 할 만한것은 효행자의 연령이 60대 이상인 노년층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70세 이상도 7%를 차지하고 있었다. 노년에 배우자 사별후 자신의 부모나 시부모를 직접 모시고 있어, 이들의 부양부담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비록 남자효행자의 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실

〈표 1〉 효행자의 개인적 특성

n=137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58 (42%)	연령	20대 이하	18 (13%)
	여	79 (58%)		30대	23 (17%)
가족내 지위	장남	43 (31%)		40대	37 (27%)
	차남이하	14 (10%)		50대	28(20%)
	딸	11 (8%)		60대	22 (16%)
	맏며느리	50 (37%)		70대	9 (7%)
	둘째며느리	11 (8%)		결혼상태	미혼
	기타	8 (6%)	결혼		96 (69%)
교사	6 (4%)	사별	18 (13%)		
직업	공무원	23 (17%)	교육	무학	15 (11%)
	학생	11 (8%)		초졸	41 (30%)
	무직/기타	29 (22%)		중졸	19 (14%)
	주부	29 (21%)		고졸	37 (27%)
	농업	32 (23%)		대졸이상	25 (18%)
	회사원	7 (5%)		종교	유
	건강	양호	117 (85%)		무
불편		20 (15%)			

제로 노인부양은 그들의 배우자가 전담하게 되므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으며, 연령별에 대한 차이는 가족생활 주기상에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게 되는 실제의 연령이 40세 이상이 되기 때문이며 특히 중년기 이후의 성숙된 효에 의한 부모부양과도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명자, 1995; 김명자·안선영, 1996).

(2) 배우자 유·무 및 가족내지위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대상자의 69%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이 17%, 사별이 13%를 나타내고 있다. 미혼의 경우에는 부모의 부양으로 인해 자신의 결혼을 미루고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례이며, 나머지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학생이기 때문이다. 사별의 경우도 13%나 되는데, 남편이 사망하고 시부모와만 동거하면서 부양

을 계속하는 며느리의 사례들로 한국 특유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이혼의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효행자의 조건이 사회가 정한 모범적인 가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며, 이혼은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비사회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재혼의 경우가 한사례 있으나 사별후의 재혼이었다. 또한 노후에 사별후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재혼여건이 불리해서 일 수도 있다.

가족내 지위를 살펴본 결과 장남과 맏며느리가 31%, 37%로 두 지위는 결국 부부관계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68%는 장남과 맏며느리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효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부계중심의 장남위주 직계가족의 부양

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비율적으로 대다수의 경우 장남이나 맏며느리에 의한 부양임을 알 수 있었다(성규탁, 1996). 그러나 딸의 비율이 다른 연구들과 같이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사위가 현재 장모를 모시고 있으면서 추천을 받은 경우는 1사례뿐으로 이것은 서구와는 대조적인 결과로(Moody, 1994) 한국적 효개념이 부양의 다양화를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장남인 경우에 결혼 후 분가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모와 동거하게 되므로 노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하며, 특히 며느리의 경우 남편가족에 대한 봉사가 곧 시대에서의 자신의 가족내 지위를 확고히 하며, 자신 또한 외부인으로 아들에게 확고한 지위를 얻기 위하여 시부모의 부양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 장남의 경우 봉사조를 인정받거나 부모의 재산을 우선 상속받게 되므로 노후의 부모부양은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여겨질 수도 있다.

(3) 교육정도 및 직업

본 연구대상자들의 교육정도는 무학과 초졸이 41%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졸이나 대졸의 경우도 각각 27%, 18%로 고학력자의 비율도 높았다. 이것은 연령적으로 60세 이상인 경우, 특히 여자들의 학력이 식민지시대와 6.25 전쟁등을 통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시대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점차 고졸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율이 커져갈 것으로의 인구추이를 볼 때 당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교육의 높고 낮음의 자체보다는 연령에 관계되어 해석할 수 있다.

직업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인 교사 포함하여 공무원이 21%이며, 농업종사자가 23%, 주부가 21%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무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효행자로 추천될 수 있는 직장의 환경적 특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공무원은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인 효를 적극 수용하는 1차적 임무를 갖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자신의 노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실제로 여러가지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의 직급은 거의 대부분 하위직으로 7급에서 9급사이의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주부의 경우 집에서 농사를 지을때 비록 주부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농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기타의 부분은 자영업이나 막노동, 상업, 어업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주부양자인 주부의 경우 직업을 갖는 경우는 10% 미만으로 대부분 노부모부양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정규적인 직장을 갖기 보다는 농업이나 자영업등을 병행하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개호 휴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한국노인문제연구소편, 1996) 직업여성이 노부모를 부양하고자 휴직을 하는 경우 보다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므로 노부모 부양은 직업여성에게 많은 제한을 주게 된다.

(4) 건강 및 종교유무

<표 1>에서 처럼 본 연구에서는 효행자의 85%가 건강이 양호한 상태였으나 15%는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였다. 여기서 추천서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어려운 부양행동을 강조하기 위하여 건강 여부를 언급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건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아 장애가 있는 경우와 특별히 건강에 대해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호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부양자가 23%나 되어 이들의 건강이 양호하다는 것이 어느정도 인가와 그들의 노년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양호의 비율 중에서도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인의 종교성은 그들의 생활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미국의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백인보다는 흑인들이, 상류층보다는 하류층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 더 높은 종교참여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Taylor, 1991). 또한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에서도 종교성은 중요한 대처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효행행적서에 종교를 갖고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이것은 종교의 종파적인 특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추천인이 종교인인 경우에 기독교나 천주교의 경우에는 개인의 종교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향촌이나 유도회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종교성을 언급하지 않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교는 종교라기 보다는 생활화된 관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2) 효행자의 가족특성

(1) 가족원 수 및 가족구성

〈연구문제 1-1〉와 관련하여 효행자의 가족특성을 분석한 내용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전체 가족원수의 평균인원은 4.9명으로 97년도 통계청(1997)에서 발표한 평균인원 3.3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노부모부양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동거율 99%), 자신의 핵가족에 부모(편부모 포함)까지 포함되는 경우 평균 5인의 가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례를 중심으로 효행자 가족구성은 효행자를 중심으로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우선, 1효행자 핵가족 + 노부모(편), 2 효행자 핵가족 + 노부모 + 형제(가족), 3 노부모 + 효행자(미혼) + 형제, 4 노부모 + 효행자 직계가족, 5 기타가족 등이다.

구체적으로 1유형이 가장 많아 65%를 차지하며, 4 유형의 4대가족도 9%나 되었다. 기타가족은 1인 가족, 4대 가족에 형제·자매의 가족이 포함되는 경우이다. 대체로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그 이외에도 장애를 갖는 형제·자매나 그들의 자녀까지도 가족구성에 포함되며, 조부모와의 동거도 일반적이다. 94년도 가족영역의 삶의 질에 관한 실태연구에서는 부계의 부모가 생존하는 경우가 64.2% 이고, 이중에서 동거율은 23.6%로 나타났으며, '97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도 3대가족은 11.4%, 4세대는 0.2%로 순수한 핵가족 이외의 가족비율은 20.3%로 나타나고 있다.

(2) 가족결속도와 가족의 도움정도

효행가족은 동거율과 부양율에서 이미 세대간의 결속이 강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가족내의 부양 의식은 자연히 효행자 자녀세대와 관련된 결속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조부모의 부양행동을 도와주는 손녀는 그들 부모의 부양행동 어려움을 감지하고 자신이 부모대신으로 조모의 수발을 맡아서 하게 된다. 가족의 결속도를 보기위해 가족원의 도움정도를

분석하였는데, 효행자는 대부분 가족원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족도 41사례나 되었다(2인 가족 8사례 포함).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가족중에서 구체적으로 배우자, 자녀, 형제, 부모의 순이며, 1인 이상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는 부양행동에 좋은 자원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효행가족의 가족특성으로 가족원의 장애정도를 분석한 결과, 피부양자 이외에 장애를 갖는 가족의 비율이 43%(1명 이상의 장애가족을 갖는 사례도 12사례임)로 효행자는 피부양자이외에도 장애를 갖는 가족원이 있어 부양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피부양자의 특성

노부모부양에 있어 피부양자의 특성은 부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피부양자의 건강이나 연령, 피부양기간, 피부양자와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지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특히 효행상 추천자가족이므로 피부양자의 특성은 다른 일반 부양자들 보다 더욱 열악한 경향을 보였다. 피부양자의 건강에서 17가족만이 양호하여 거동이 자유로웠으며 나머지 피부양자는 중풍이 31%, 치매 19%, 노환이 21%로 나타났으며, 1개 이상의 질병을 갖는 노인들도 많아 모두 거동 불능이거나 불편을 느꼈으며, 전적인 서비스부양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부양자의 연령도 70대가 25%, 80대가 28%, 90대가 23%로 고령이며, 질병을 갖는 경우 호전되거나 완치되기 보다는 연령의 증가로 노환과 더불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부양기간도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10년 이상인 경우가 40%이며, 20년 장기부양이 25%, 25-30년 장기부양이 12%, 30년 이상인 경우가 3%이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질병이 있기전에는 자녀의 양육, 부양자의 산간, 경제적 도움등 부양자가 상호 도움을 받았으며, 동거기간이 매우 길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효행행적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피부양기간을 질병을 갖게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산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와의 동거기

간은 이보다 더욱 길게 나타났다.

(4) 주거환경

부양자의 주거환경은 주택이 79%이고, 아파트가 17%, 연립이 3%로 특히 농촌의 경우 단독주택은 화장실과 목욕실이 집안에 있지 않아 생활하기가 불편하며, 질병을 갖는 노인의 병수발을 하기에는 어려운 가정환경이 되고 있다. 피부양자의 방에 따로 화장실과 욕실이 달린 경우는 전체 사례에서 2사례에 불과 하며, 이것도 노인의 기능에 맞추어 턱을 낮추거나 바닥치리를 한 경우가 아니라 간이시설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아파트거주자인 경우 실내에 화장실이 있어 그나마 편리하지만 대부분 피부양자용 화장실이 따로 있기 보다는 가족 전체가 사용하는 곳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피부양자가 거주하는 방에서 대소변 수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대소변 수발을 위한 어른 용기저귀나 도구를 사용하기 보다는 직접 받아내거나 하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정설비 부분에서도 노인을 위한 의료기기의 보유상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족의 10%만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부양자 뿐만이 아니라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간호서비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동용 번기나 보청기,혈압계등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화장실이 딸린 노인 전용방을 갖거나, 이동을 위한 휠체어의 보유율이 희소하여, 노인보호시설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기준이나 프로그램, 특히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에는 요구되는 주거기준이 있지만 효행가족의 주거환경은 간호를

〈표 2〉 효행자가족의 가족특성

n=137

변 인	구 분	빈 도(%)	변 인	구 분	빈 도(%)
가족유형*	1	89 (65%)	피부양자연령	70미만	32 (24%)
	2	12 (9%)		70대	34 (25%)
	3	18 (13%)		80대	38 (28%)
	4	12 (9%)		90대 이상	31 (23%)
	5	5 (4%)	피부양자 건강	양호	17 (12%)
가족도움	배우자	63 (46%)	건강상태	불편	120 (88%)
	자녀	44 (32%)		중풍	43 (31%)
	부모	12 (9%)		치매	26 (19%)
	형제	18 (13%)		관절	16 (12%)
가족원 장애	유	58 (43%)	노환	29 (21%)	
	무	79 (57%)	맹인	6 (4%)	
가정설비	유	14 (10%)	양호	18 (13%)	
	무	123 (90%)	부양기간	10년미만	27 (20%)
주거환경	주택	108 (79%)		10년	55 (40%)
	아파트	23 (17%)		20년	34 (25%)
	연립	4 (3%)		25~30	17 (12%)
	기타	2 (1%)		30년이상	4 (3%)

* 1~5 유형 내용은 본문 참조.

위하기 보다는 수용에 불과한 수준이었다(서미경외; 1996).

3) 효행자의 가족외적 지원

Gatz et al(1990)은 노인가족의 부양에 대한 연구에서 부양자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중요한 자원으로 사회적인 지지가 매우 중요한 가족외적인 환경이라고 하였다. Pyke & Bengtson(1996)도 노인의 부양에 있어서 집단적인 특성을 갖는 가족이 보다 1차적인 부양책임을 다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비용 - 경제적 어려움이나 서비스의 지원 - 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이들의 부양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해결점이라고 시사하였다. Stress 이론에서도 Double ABCX Model을 통해 가족의 자원을 지원해 주는 사회적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

〈연구문제 1-2〉와 관련하여 효행자 가족의 가족외적 지원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효행자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친족 및 이웃과의 교류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지원정도에 대한 내용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복지지원의 정도 및 효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여 이들이 갖는 사회적 지원정도를 보고자 하였다(표 3).

(1) 친족 및 이웃과의 교류

효행자의 부양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가족이지만 효행가족을 분석해 보면 그들의 가족외적인 특성들도 부양행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회지적환경 특성을 갖는다. 우선 비동거가족원을 포함한 친족과 이웃, 친구와의 교류정도를 보면, 비동거가족원과 친족, 이웃이 근접거리에서 빈번하게 도움을 주는 사례가 112사례였다(82%). 비동거가족원과 친족 및 이웃과의 교류정도는 행적서를 중심으로 교류내용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한 지역에 거주한 거주기간을 함께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한곳에서 거주한 대상자가 60사례(44%)이며, 구체적으로 거주기간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즉 한곳에서 오랜동안 지내면서 이웃과의 교류가 친족이상인 가족들은 부양행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특히 이들 중에서는 이웃 및 지역사회의 다른 어려운 가족들을

오히려 도와주거나 모임의 장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주도하는 경우도 27사례(20%)나 되었다.

(2) 지역사회프로그램 및 효에 대한 관심

효행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효에 대한 관심을 분석한 결과 종교단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가족이 10사례, 경로당 및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30사례로 약 40사례정도가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도움의 내용에 있어서는 방문이나 경로당의 마을잔치, 효도 관광등으로 실제적으로 부양자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없었다. 현재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 사업은 독거노인이나 거택보호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효행가족 중에서 재가복지사업의 서비스를 받은 가족은 한사례도 없었다. 특별히 지역사회로 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가족은 11사례이며, 병원비 보조나 학비지원, 주택의 개축, 생활보조비 지원등이 그 내용이었다.

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으로 효행자가 그들의 부양행동에 대해 사회적인 보상을 받은 정도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추천한 추천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본 결과, 94사례(64%)의 부양자가 1번 이상의 효행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었으며, 추천인의 경우에는 종교기관장(15사례), 소속단체장(22사례), 행정기관장 (50사례), 지역 노인회(8사례), 기타(42사례)의 내용이다. 여기서 기타의 내용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추천인과 함께 96년도 대상자의 경우 추천인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미기재의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효행가족의 경우 어느정도 사회적인 관심과 보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들가족이 여러기관에서 실시하는 효행상의 수상자로 이미 수상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효행상 추천대상이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며, 특히 효행자의 추천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여러 대상자 중에서 한 번 선정된 대상이 재추천 되는 경우로(본 연구에서도 96년, 97년도 수상후보자 중에서 10사례가 중복되어 추

〈표 3〉 가족외적인 지원

n=137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친족도움	유	112 (82%)	출신지역	도시	68 (50%)
	무	25 (18%)		농촌	69 (50%)
지역사회지원	유	40 (29%)	추천인	종교기관장	15 (10%)
	무	97 (71%)		소속단체장	22 (16%)
효행수상경험	유	94 (64%)		행정기관장	50 (37%)
	무	43 (36%)		기타	50 (37%)
효행수상기관	지역사회	86 (63%)	거주기간	10년이내	97 (66%)
	국가	51 (37%)		10년이상	60 (44%)

천되었음) 이들 사례 가족들은 사회적 관심을 이미 받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노부모 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사회적 관심이나 보상에서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구체적으로 상을 타거나 포상을 받는 것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효부나 효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명예적 지원역할도 커서 자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도적 복지지원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적 관심으로는 효행가족에 대한 제도적인 복지지원의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실제적인 복지지원의 내용은 생활보호대상가족(6사례), 거택보호가족(2사례), 보훈가족(6사례) 등이며, 장애가족이나 극빈가족이지만 기준에 미달된 가족의 사례도 있다(3가족).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거택보호는 월소득 22만원, 자활보호는 23만원으로 이들 대상자 가족 중에서 노인가족에게 지급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65세 이상 노령수당 지급과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인복육권 지급,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요구르트 배달 등이 있다. 이상에서 전체 복지지원의 정도가 제도적으로 매우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가족이며, 피부양자가 중증장애를 갖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에 미달하여 재정적, 서비스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족이 전체 사례가족의 90%

에 달하고 있다.

효행자의 출생지와 거주지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출생지의 경우에는 전라도(29사례), 충청도(26사례), 경상도(23사례), 경기(15사례), 강원(10사례), 서울 및 광역시(31사례)였다. 거주지를 농촌과 도시로 분류하여 보면, 도시가 68사례, 농촌이 69사례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개편에 따라 도시로 개편된 일부지역은 도시라기 보다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생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 실제로 농촌의 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출생지와 거주지의 분포는 그들 지역사회의 효에 대한 규범과 이들의 부양행동지속을 결정하는 자료로 도시보다는 농촌의 경우 그 지역사회에 효부나 효자에 대한 기록이 있거나, 향교나 유도회등의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 효행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효행자들의 효행을 지역사회나 국가에서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효행상을 수여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동호회, 부녀회, 향교, 문중, 마을 노인회, 지역문화관, 종교기관, 유도회, 제향경우회, 법인체)에서 63%를 차지하였으며, 국가적으로는 각 행정기관 부서별, 총무처, 교육부, 경찰청, 군수, 면장등 37%를 차지하고 있다.

2. 효행가족의 부양행동 및 어려움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효행자 가족의 부양행동을 사례별로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으며, 부양행동을 경제적 부양행동, 정서적 부양행동, 서비스적 부양행동으로 구분하여 효행동이 부양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들 부양의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적 부양행동 및 어려움

본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동거를 하면서 노부모를 부양하며, 부양기간도 평균 10년 이상이었다. 경제적 부양행동을 구체적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노인에게 대한 생활비, 의료비, 기타비용이다. 즉 용돈을 마련해 드리거나 실제적인 의·식·주 해결에 관한 생활비의 제공과 병원비 지출, 보약을 지어올리는 일, 수술비 등을 마련하는 일이며, 마지막으로 생신상을 차리고 이웃을 초대하는 일, 노인과 관련된 이웃의 일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 부모를 대신하여 형제나 자매, 친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세가지 부양내용은 모든 효행자 가족에게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세가지 모두를 한 가족이 전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중, 하 정도인 이들 가족에게 경제적 부양은 가장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었다. 경제적 부양행동의 특성으로 이들 효행가족의 경제적 지출이 자신의 가계에 매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다른 가족외적인 도움없이 가족부양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 부양의 어려움은 효행자 가족원간의 자원분배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어, 자녀교육이나 주택마련, 여가생활에 대한 지출에 어려움을 느끼며, 특히 와병노인의 부양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져 와병노인의 치료는 물론 가족원의 생계도 어려우며, 부모와 형제의 부양을 위해 자신의 결혼도 포기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의 효행동이 사회적으로는 귀감이 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많은 희생과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노부모와 형제에 대한 부양으로 자신의 결혼을 포기한 경우도 9사례나 되고 있

다.

이와같이 효행가족의 경제적 부양의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가족부양을 어렵게 하며, 특히 자녀부양에 부담을 느끼게 되거나 둘째, 노부모뿐 아니라 형제에 대한 경제적부양 부담, 세제, 자신의 결혼을 포기하는 일등의 노부모 부양의 어려움을 갖는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37세의 무학이고 부부가 모두 농아인 효행자는 둘째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오면서 소작농으로 거동불능의 노모(65세)를 부양하고 있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형의 주택마련비는 물론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차값을 대신 지불하는 등의 효행을 보이고 있음.

사례 2. 7급 공무원인 K씨(42세)는 결혼전 자신의 동생들 학비와 부모님 부양을 위해 교육을 포기하고 부양을 전담하였으며, 결혼 후 병든 시부(74세)와 시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시동생들의 교육 및 출가를 시키는 효행을 보임.

사례 3. 53세의 장남으로 국졸의 지체장애 5급인 어려운 환경속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90세의 중풍의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아직 집도 마련치 못했으며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포기하였음. 좁은 집에서 4대가 함께 기거하며 노모를 극진히 부양하고 있음

사례 4. 40세의 외무서리로 두시누이가 있으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풍의 시부(81세)와 치매기를 보이는 시모(80세) 부양과 지체장애 3급의 남편을 돌보느라 직장을 나가지 못해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 고등학생인 두자녀의 학비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음.

사례 5. 33세인 K씨는 병약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가장노릇을 하며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대고 장기이식을 해주는 등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자신의 결혼도 포기하고 장사를 하면서 가족을 부양함.

이상에서와 같이 효행가족의 어려움은 그들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며, 실제로 효행자는 물론 그들 가족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장기부양으로 인한 노부모의 의료비는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들가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정서적 부양행동과 어려움

정서적 부양행동이란 대화상대가 되어 주거나, 가족 의사결정에서 노부모의 의견에 따르거나 애정, 신뢰를 바탕으로 부모를 대하거나 또는 자주 찾아뵙고 문안을 드리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부분 구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화상대는 물론 어른으로서의 예우와 아침·저녁 문안은 기본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양자의 만성적 질병으로 부양기간이 장기화 되고 치매와 대소변 수발, 목욕시증으로 신체적인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도 부모를 정서적으로 부양할 수 있음은 이들이 효행상 추천가족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라 생각되는 바이다. 특히 다른 부양행동과 달리 정서적 부양행동은 오랜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친밀감이 형성되거나, 손자녀의 양육이나 집안의 대소사등에서 오는 일치감, 또한 가족사를 함께 해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교감에 의해 그 부양의 질적차원이 결정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부양과는 달리 가족외의 친족이나 이웃으로 부터 부양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며, 특히 가까이 있는 경우 지원의 양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사례 1. 효행자 P씨(58세)는 편모(91세)를 모시고 부양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선산을 찾고 형남네가 진 빚을 대신 물며 특히 부인과 함께 유모어 섞인 언어와 행동으로 노모의 비좁은 환자의 방을 가족의 모임의 장소로 하여 모든 가족이 피부양자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

사례 2. 효행자 K씨(57세)는 치매와 거동 불편의 시부모(85세, 84세)를 수발하면서 집안일을 금금해하는 시모에게 모든 집안일에 대한 의논을 함께하고, 시부모의 말씀을 경청하였으며, 딸처럼 시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시중하였음.

사례 3. 효행자 K씨(68세)는 전쟁에 나간 남편의 첫면회를 시어머니에게 양보할 정도로 배려를 하며, 남편이 전사한 후에도 남은 자녀와 함께 어려움 속

에서도 시모(93세)를 극진히 모셨으며, 모든 가족사에서 중요한 지원자의 역할을 하여온 시모를 비록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지만 남편이나 친부모이상으로 의지하고 그 수발에 정성을 다함.

사례 4. 효행자 L씨(56세)는 중풍으로 기억력 감퇴 및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노모(86세)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심을 갖으며, 생신은 물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웃 노인분들을 초대하여 시모의 외로움을 달래주게 한다. 또한 이장일을 하면서 동네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하여 경로잔치는 물론 효도관광을 보내드리는 일등을 하여 부모님의 뜻을 받들.

이상에서 정서적 부양행동은 다른 부양가족들과는 달리 효행가족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는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 뜻을 따르고, 따뜻한 정이 오가며 특히 세대간에 걸쳐 효행자 개인은 물론 모든 가족이 애정을 갖고 부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서비스적 부양행동과 어려움

서비스적 부양행동은 효행자의 부양행동에서 가장 실제적인 내용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부양자의 부적응과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다. 효행가족에서의 서비스적 부양행동의 내용으로는 와병중인 부모 간병, 대소변 시중, 식사시중, 병원 통원 및 간병시중, 세탁 및 침실시중, 외출시 동반하거나 일상생활의 행동을 시중드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여성 부양자가 남성 부양자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거나 부양부담이 큰 이 유증에서 여성의 역할이 서비스적 부양에 치중되기 때문이라는 연구에서처럼(DeVries et al, 1997) 주부양자에 의해 역할이 전담되고 있었다. 본 효행대상자에서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부모의 서비스 부양을 맡고 있는 사람은 주부양자인 여성 즉 며느리이거나(82%) 딸(2%)의 경우였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서비스 부양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구하는 일은 매우 드물며, 비가족원인 친족의 경우에도 상시로 도와주기 보다는 유사시에만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이며, 다른 가사노동과 병행되는 일이므로 결국은 가족의 주부권을 갖는 사람

에 의해 전담되고 있었다.

노부모의 질병이 복합적이거나 장기화 되는 경우와 한 가족에 외병중인 노부모는 물론 장애를 갖는 다른 가족원이 있는 경우 서비스 부양은 더욱 어려워지지만 주택의 구조나 의료기기, 가정설비등에서 매우 열악하여 부양부담이 더욱 커지며, 개인적으로 시간적 부담이나 건강 악화, 자신의 삶에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사례에서 보이고 있다. 또한 본인들이 생각하는 효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 모든 부양을 직접 수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효행자나 배우자에 의해 수행되므로 더욱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서비스적 부양행동은 육체적 노동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양자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며, 오랜동안의 부양으로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와 본인이 연로한 고령자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부양을 분담할 수 없어 서비스적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생각된다.

사례 1. 58세인 L씨는 43년간 시부모를 모시고 촌부로 살아 오면서 86세인 고령의 거동불능인 시모를 수발하느라 마을 관광도 한번 가보지 못했으며, 급기야 3년 전부터 남편까지 허리를 못쓰게 되어 부양의 부담이 커짐.

사례 2. 38세인 B씨는 허리디스크로 병상에 계시는 노모(64세)를 자신의 가족과 함께 단칸방에서 기거하며 대소변 시중을 하면서 어머니의 병환치료를 위해 몸소 업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음.

사례 3. 70세의 시모와 90세의 시조모의 간병 수발로 자신(58세)은 시모를 부양하고 있으면서 치매가 있는 시조모의 부양을 위해 자녀의 취업도 포기시키고 옆에서 돌보며, 서비스적 부양행동을 함.

사례 4. 42세의 외며느리로 시집오자마자 시아버지(82세)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집안일을 맡아오던 중 7년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중환자실에서 3년을 보내고 현재 지체장애 3급의 판정을 받고 있지만 급기야 3년 전부터 집안일을 도와주시던 시어머니(82세)가 치매기를 보이고 있어 현재는 3명의 거동 불능인 가족을 부양하느라

서비스부양의 어려움을 겪고있음.

사례 5. 둘째 며느리로(30세) 젊은 시어머니(49세)의 허리 디스크와 함께 시누이의 관절장애로 서비스적 부양이 가중되고, 본인 또한 어린 두 자녀의 양육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의 도움과 사랑으로 모든 서비스부양을 혼자서 해나감.

이상에서 효행가족의 서비스적 부양이 주부양자인 주부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기부양을 통해 어느정도 숙달된 부양을 해나가고 있어 직접적인 서비스부양의 어려움 보다는 가족원이나 친족의 관심이나 정서적 지원과 이들 주부양자의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직장에서의 승진을 뒤로한채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전근을 가지 않고 가까이서 부양을 하거나 형제·자매 등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등의 사례들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3가지 부양이 중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현대의 효는 물질적인 측면보다 정신적인 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일방적 방향성의 체계로만 생각되기 보다는 가족관계의 횡적 유대감과 연대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가족내, 외적인 보상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부모, 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성인자녀의 새로운 관계규범이 필요할 것이다(김명자, 1996). 효행가족은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부양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의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인정하는 효행자에 대한 기준은 매우 이상적이어서 실제로 가족들의 회생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변화에 비해 가치적인 기준이 지체를 보이는 노부모 부양을 연구하기 위하여 효행자가족의 특성과 부양행동에 대하여 효행자 추천서

를 중심으로 내용분석하여 보았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노부모 부양을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왔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효행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적인 특성은 물론 친족이나 이웃, 사회제도적인 특성까지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의 부양행동과 어려움을 분석하여 이들가족에게 요구되는 자원을 찾아내어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앞으로 장기화 되는 고령의 노인부양을 위한 가족부양프로그램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행자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중년이상에서 노년초기까지의 여성이 주부양자로서 부양역할을 하며, 건강은 양호하나 직업은 전업주부이며, 젊은 연령층에 비해 교육수준도 낮았다. 특히 장남이거나 아들 또는 만며느리이거나 며느리의 비율이 딸보다 월등히 높아 가부장제의 직계가족형태가 우선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효행자의 가족은 동거를 기본으로 하는 3세대 가족으로 가족결속도가 매우 높으며 집합적 가족주의 성향을 띄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 비가족원인 형제·자매나 친족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이고 계획적이기 보다는 간헐적이고 임시적이어서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을 덜어줄 수는 없다.

셋째, 효행가족의 피부양자 특성은 88% 이상이 거동불능이거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매우 의존적이며, 8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도 5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이 복합적이고 장기화되어 부양상황이 매우 어려우며, 10년 이상의 장기부양 가족이 40%를 넘고 있어 부양의 어려움이 매우 절실하다.

넷째, 효행자가족의 부양은 의료기구나 부양을 위한 제반 주거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더욱 어려우며, 가족우선적 부양이므로 사회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사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효행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상도 매우 미비하며, 구체적인 와병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효행자가족의 부양행동은 특별한 행동이라기 보다는 일반 노인부양가족과 비슷하며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 부양행동이 한 가족에게 집중되어 장기화 되며, 특히 경제적 부양부담이 커서 나머지 가족원들의 희생이 따르게 된다.

여섯째, 효행자가족의 부양의 어려움은 노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적 측면보다는 도구적인 어려움이 크며, 특히 주부양자인 여성의 서비스부양 역할부담이 매우 커서 다른 가족원들에 비해 어려움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효행행적서를 분석하였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을 분석하는데 제한적이다. 따라서 어려운 부양상황을 지속할 수 있는 효행가족의 적응기제에 관한 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3세대 가족의 비율이 작아지거나 와병의 고령노인들이 증가하게 되며, 한국적 정서하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이들 노인부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도구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효에 대한 가치를 사회정서화함에 있어 개별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정서적인 보상제도가 국가적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효행자 개인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의 자녀나 배우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와병노인 의료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중돈(1995). 한국치매가족연구-부양부담사정도구 및 결정모형모델-. 홍익재.
 김두현(1989).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

- 구. 이대 박사학위논문.
- _____(1995).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25-137.
- _____(1996). 노년기 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숙대생활과학연구소*, 4-17.
- 김명자 · 안선영(1996). 신세대부부와 중년기부부의 효도관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6), 113-125.
- 김일명 · 이정덕(1996). 삼국유사에 나타난 부모-자녀 간 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19-34.
- 박부진(1996). 가족구성의 변화와 전망. *정신문화연구* 19(2), 39-57.
- 성규탁(1989). 현대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 가족 중심적 부양의 이념 및 실천. *한국노년학* 9, 28-42.
- _____(1996). 부모 부양지의 비교문화적 고찰. 박재간 외.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 1995.
- 성미애 · 옥선화(1997). 효규범에 대한 사적인 고찰-호혜성 및 공정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3), 245-257.
- 송현애 · 이정덕(1995). 시부모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15-123.
- 서미경 외(1996). 노인종합복지타운의 모형개발-노인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4-17.
- 이광규외(1996). 가족의 관계역동성과 문제인식. *아산재단 연구총서* 29, 집문당.
- 이태진(1990). *조선유교사회사론*. 서울:지식산업사.
- 장현섭 외(1994). 가족영역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진교훈(1996). 가정의 근원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19(2), 5-37.
- 최재석(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 최정혜(1994).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노부모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4(2), 25-36.
- 통계청(1997). *한국인의 사회지표*.
- 한국노인복지회(1996). *재가노인복지사업 -이론과 실제-*. 홍익제.
- Hayes ,B.C.& Pittelkow,Y(1993). Religious Belief, Transmission, and the Family:An Australian Study. *J. of Marriage and Family* 55(August), 755-766.
- Keith,C.(1995). Family Caregiving Systems;Models, Resources and Values. *J. of Marriage and Family* 57(February), 179-189.
- Markiewicz et al(1997). An Exploration of Attachment Styles and Personality Traits in Caregiving for Dementia Patients. *J.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5(2), 111-132.
- Brody,G.H. et al(1994). Religion's Role in Organizing Family Relationships:Family Process in Rural, Two-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J. of Marriage and Family* 56(November), 878-888.
- Gary & Lee(1994).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s and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Assistance. *J. of Marriage and Family* 56(August), 559-565.
- HaeKyung Choi(1993). Cultural and Noncultural Factors as Determinants of Caregiver Burden for the Impaired Elderly in South Korea. *The Gerontologist* 33(1), 8-15.
- Devries,H.M. et al(1997). Patterns of Coping Preferences for Male and Female Caregivers of Frail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12(2), 263-267.
- Finch,J(1995). Responsibilitie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Ch3. *The Future of Family Care for Older People*. Allen.I & Perkin.E. London. HMSO, 51-64.
- Pyke,K.D. & Bengtson,V.L.(1996). Caring More or Less;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 System of Family Eldercare. *J. of Marriage and Family* 58(May), 379-392
- Pillemer,K. & Sutor,J.(1996). 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Caregivers to Persons

- with Alzheimer's Disease,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ch19, Pierce, G.R. et al, Plenum Press, 467-494.
- Kling, K.C. et al (1997). Distinctive Late-Life Challenges: Implications for Coping and Well-Being. *Psychology and Aging* 12(2), 288-295.
- Gatz, M. et al (1990). Caregiving Familie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3rd J.E. Birren & K. W. Schaie Academic Press, Inc, NY. 404-426
- Starrels, M.E. et al (1997) The Stress of Caring for a Parent; Effects of the Elder's Impairment on an Employed Adult Child. *J. of Marriage and Family* 59(November), 860-872.
- Pruchno, R.A et al (1997). Coping Strategies of People Living in Multigenerational Households: Effects on Well-Being. *Psychology and Aging* 12(1), 115-124.
- Coward, R.T. et al (1992). Gender, Families and Elder-care, Newbury Park CA: Sage, 18-33.
- Mathews, S.H. (1995). Gender and Division of Filial Responsibility Between Lone Sisters and Their Brothers. *J. of Gerontology* 50B(5), s312-320.
- Hanson, K.M & Mintz, L.B. (1997). Psychological Health and Problem-Solving Self-Appraisal in Older Adults. *J. of Counselling Psychology* 44 (4), 433-441.
- Reinhard, S.C. & Horwitz, A.V. (1995). Caregiver Burden: Differentiating the Content and Consequences of Family Caregiving. *J. of Marriage and Family* 57(August), 741-750.
- Moody, H.R. (1994). Should Families Provide for Their Own? Controversy 4, Aging. Pine forge press, 127-156.
- Yoon-Ro, L & K.T. Sung (1998). Cultural Influences on Caregiving Burden: Cases of Koreans and Americans.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6(2), 125-141.